

2017년 학생회 재선거

48대 권예하 집행위원장, ‘열·일’ 선본으로 총학출마

서울캠 총학후보 인터뷰

이수형 기자 dltbd112@knu.ac.kr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재선거 투표기간(27일~29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학 부재상황 약 3개월 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선거에는 ‘열·일’ 선본이 단독 출마했다.

‘열·일’ 선본의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정후보와 김혜영(아동가족학 2012) 부후보는 신입생이 아니리면 의히 알만한 얼굴들이다. 특히 권 후보는 2012년 총여학생회장을 시작으로, 2014년 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2015년 정경대학 학생회장, 2016년 총학 집행 위원장을 지낸 학생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열·일’ 선본은 “대표자 공백기 동안 학교가 미래창조스쿨, 외국인등록금 인상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누구라도 책임감을 갖고 나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출마계기를 밝혔다.

학생회 경력이 길다보니 권 후보에게는 ‘업무경험이 풍부해 학생회 운영에 유리한 면이 많다’는 평가와 함께, ‘이전 총학과 차이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지금까지의 총학 운영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권 후보는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생활적인 부분을 지원 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Q. 정·부후보 모두 총여학생회장 출신이라 일부 학생들은 ‘총여학생회 출신 선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특정 커뮤니티에선 총여학생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선본 이미지에 투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권예하 정후보(정) : 총여학생회를 하면서 총학생회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 제가 총여학생회장을 할 때 가졌던 생각들과 총학생회로서 가져야 하는 생각의 방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닐까 싶다.

Q. 수강신청 대기순번제는 학교도 한창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도개선이 용이해 보이지만 강의 수 부족은 어떻게 접근할 예정인가?

정 : 선거기간 중에 관련 단위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 면담요청을 했지만, 이 사안은 그냥 논의테이블에 앉아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적인 부분에 결정권자가 학생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요구가 모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학생의견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Q. 신축기숙사는 행복기숙사로, 이미 20만 원 선에서 입사비가 결정됐고 경인지역 입사도 예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 이를 공약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혜영 부후보(부) : 경인지역 입사는 학교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지만 아직 입사조건이나 선발기준 등은 학생들과 소통을 거치지 않았기에 공약으로 내걸게 됐다. 신축 기숙사는 19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우 분들이 값싼 가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3년간 기숙사를 고정하고자 한다.

Q. 양 캠퍼스 모두 ‘역량강화 장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적인 장학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약인 경제지원 장학을 중심으로 재개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지원 장학이 장학제도의 중심이 돼야 하는 근거를 설명 듣고 싶다.

부 : 대학주보 기사로 생활비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접했다. 천 명이 넘는데, 그 중 100명 정도만 생활비 장학을 받을 수 있고 우정장학 또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여탕에 장학금을 집중해야 하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소득분위를 통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우정장학보다는 ‘보편적인’ 생활비 장학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정 :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학생들이 더 공부를 하고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생활비나 경제지원 장학 중심이 맞다. 전공교재만 해도 10만 원 넘어가는 곳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장학이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학의 방향성에 학생이 원하는 바와 학교가 원하는 바가 부합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

Q. 대선 5대 의제 선정, 투표일 ‘출석체크 없는 날’ 지정, 어떤 계획인가?

정 : 대선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대해 학생의 인식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느꼈다. 이번 대선에 대학생의제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대학주보가 진행하는 대선주자 간담회도 잘 보고 있는데, 단순 간담회를 넘어 대학생들의 의견을 의제화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총학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껴 ‘경희인 5대 의제 선정’을 계획했다.

또 학생은 투표하려는 의지가 많은데 임시공휴일임에도 보강 잡기가 어려워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 꼭 계신다. 일괄적인 휴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출석체크가 없다면 투표하는데 부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획한 공약이다.

Q. 이달 말 입학금 반환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당징수 입학금 반환운동’은 재판에서 입학금 반환이 무산됐을 때를 생각한 공약인가?

정 : 재판과 관계없이 입학금 반환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길게 봐선 입학금 폐지가 목표지만, 최소한 근거를 갖고 입학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Q. 48대 총학은 회계감사단위를 단과대학 학생회로 확대 시행하는 안을 무산시켰다. ‘열·일’이 내세운 통합 회계운영세칙 제정은 무산된 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

정 : 회계감사를 전단위로 확대하는 것 이 작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 단위가 회계 감사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꼈고, 단위마다 결산안 공개 방식, 회계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 지지부진 했다. 지금 고민하는 회계운영세칙은 각 단위의 회계운영을 공통양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학생 누구나 본인이 속한 단위(교수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학생회)가 어떤 예산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본양식은 지난 체육대학 오토비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제작해 공개



올해 꼭 해야 할 열가지 일!

핵심 3개 공약

1. 수업권 문제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 강의 수 부족으로 인한 교양강의 수강신청 문제 대응,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지속여부·재수강 제한제도 찬반여부 모바일 정책투표로 결정

2. 신축기숙사 입사, 더 폭넓게, 더 쉽게! 신축 기숙사비(20만 원 선) 최소 3년간 고정·경인지역 입사보장, 기숙사 신청 눈치전쟁 No! (1, 2순위 신청제) 도입, 입사 시 계약기간 전에도 쉽게 자취방 빌 수 있게 임시 중개페이지 운영

3. 신축 건물 사용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돕겠습니다. 관련 단과대학의 논의사항(면담,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 신축기숙사 1층 라운지·경희인이 직접 디자인

놓치고 갈수 없는 7대 공약

4. 장학금, 꼭 필요한 학우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장학제도를 경제지원 장학 중심으로 재편 신축건물 매장수익 일부 장학금 환원 요구

5. 빨라진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에 나서겠습니다. 경희인 대선 5대 의제 선정, 투표일은 ‘출석체크 없는 날’로 지정

6. 입학금, 외국인등록금 문제해결에 나서겠습니다. 부당징수 입학금 반환운동, 외국인등록금에도 등록금 상한제 적용

7.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통합 회계운영세칙 제정, 반(反)성폭력 내규 제정 및 교육

8. 소모임, 학회를 지원하겠습니다. 50개 소모임, 학회에 인쇄비 5만 원 지원, 대동제 때 단과대학과 공동소모임 상설무대 운영

9. 해치지 않아요! 더 가까운 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시험기간, 새로운 길거리메뉴로 돌아온 〈황금마차〉, 소모임 밥값이 부담될 때 총학생회와 〈학식 한끼줍쇼〉

10. 경희 인의 버킷리스트를 응원합니다. 낭만이 있는 본관놀이! 〈벚꽃영화제〉 개최, 포토샵·피트니스 등 재능배움 사이트 수강료 할인

했다. 회계감사 건에 관해서는 이후에 논의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정 : 총학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한 생각은 ‘학생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는 것이

다. 학번 때문인지 ‘총학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학생들이 쉬이 다가오지 않는다. 실무에 집중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더라.

늘 ‘학생들과 더 가까이 할 걸’하고 아쉬웠다. 그러나 학생들도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아직 배울게 많다.

정경대학 ‘디딤돌’ 선본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시도할 것”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제49대 정경대학 학생회 재보궐 선거에 우예림(언론정보학 2015) 정후보와 민혁(경제학 2014) 부후보가 ‘디딤돌’ 선거본부(선본)로 단독 출마했다. 디딤돌 선본은 ▲정경대학 추가 공간확보 ▲통학 학우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심야시간 정경대학 안전개방을 주요공약으로 꼽았다.

Q. 출마계기가 무엇인가?

A. SPACE21 사업 이후 정경대학 공간확보 문제나, 여타 다른 상황에서 학생회장직이 공석이라면 정경대학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할 것이 우려가 컸다.

Q. 교통비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A. 사업대상자인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우’는 대중교통을 사용해서 회기역까지 오는데 40분 이상이 걸리는 학생을 말한다. 한 학기당 10만 원을 20명 내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주소지 등 의증빙서류를 토대로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Q. 홈페이지 리뉴얼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정경대학 학생회 홈페이지라고 불릴 수 있는 웹페이지는 싸이월드 클립인데,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여서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를 네이버 카페로 홈페이지를 옮기겠다.

카페에는 소모임 모집 공고나 공모전 등을 소개하고, 교재 중고장터인 정경대학 책방을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분기별로 공약 진행 현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알리겠다.

Q. MT주류지원, 스터디 그룹 지원 등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 재원마련 방법이 궁금하다.

A. 주류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크지 않다. 또한 스터디 그룹의 경우 심사 후 1등부터 3등까지 차등적으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정경대학 학기당 자치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Q. SPACE 21 사업 이후 정경대학 공간 확보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A. 2017학년도 1학기 중으로 동의마당 주변의 단과대학을 모아서 협의기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다. 협의기구에 참여해 논의하기에 앞서 정경대학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정경대학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겠다. 이를 기초로 회의에 참여해 정경대학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

Q. 이전 학생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A. 이전 학생회와의 차별화를 강조해 다른 공약을 추진하고 다른 색깔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임 학생회가 추구했던 ‘기본’이라는 가치를 이어받아 디딤돌 선본 역시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나가겠다.

자율전공학과

‘곁애’ 선본 “학생들의 학과만족도 높이겠다” ‘자랑’ 선본 “진정한 단결자전 만들겠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8대 자율전공학과 학생회 선거에 ‘곁애’ 선본과 ‘자랑’ 선본이 출마해 경선을 치룬다. ‘곁애’ 선본은 황경민(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 ‘자랑’ 선본은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이경빈(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다.

‘곁애’ 선본은 주요공약으로 ▲학과·박람회 개최 ▲글로벌리더 트랙 전임교수 배치 등을 공약으로, ‘자랑’ 선본은 ▲학사·학위제도 개선 ▲자전 커뮤니티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곁애’ 선본은 “우리학교 자율전공학과는 타 학교보다 장점이 많은 학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도 많았다. 그런 학생도 과에 애착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새내기 지원 공약에 대해 “자율전공학과의 특성상 전공이 다양하게 나눠지지만, 정말 그 전공을 잘 알고 선택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곁애’ 선본은 “1학기에는 각 전공을 선택한 선배를 초청해 ‘학과·박람회’를 개최, 전공에 대해 잘 모르는 새내기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2학기에는 각 전공을 선택한 선배와 후배를 연결해주고 필요하다면 상담 교수까지 소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곁애’ 선본은 “지난해 출입에 필요한 전

공필수 과목이 갑자기 폐강됐고, 전임교수가 없어 출입사진도 학생들끼리만 찍었다”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학생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출입준비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자랑’ 선본은 “타 학교 자율전공학과와 비교할 때 우리학교에서는 과의 입지가 작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출마했다”고 말했다.

‘자랑’ 선본은 “‘자랑’ 학과를 통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없애고,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애착을 높여주고자 노력하겠다”며 “자랑 학과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애착을 높여주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랑’ 선본은 “‘자랑’ 학과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애착을 높여주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랑’ 선본은 “‘자랑’ 학과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애착을 높여주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